

■ 2017년도 유망작가지원사업(2017 아르코작가지원사업) 지원심의평

- 사업명 : 2017년도 유망작가지원사업(2017 아르코작가지원사업)
- 회의일시 : 2017. 12. 15(금) 13: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심의위원 : 강희근, 정수자, 이재복, 한창훈, 이제하, 김대산, 박길순, 조태봉(총 8인)

2017년도 아르코작가지원사업(구. 유망작가지원사업)의 지원심의를 추천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시·시조 부문 202명, 소설 부문 147명, 아동문학(동시·동화) 부문 101명을 포함한 전체 450명의 작가들이 현재까지 보여준 작품활동의 특징들을 다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되었으며, 선정기준에 입각한 심층적 숙고와 열린 토론과 신중한 판단을 통하여 각 부문 8명(시·시조), 6명(소설), 4명(아동문학)의 지원대상작가들을 확정하였다.

선정기준은 1) 작가의 창작역량 및 최근 작품의 우수성(40%), 2) 지속적인 확산 활동 가능성(30%), 3) 기대성과 및 문학분야 발전의 기여도(30%)이며, 그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각자 평가한 것을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였으며,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협의하여 그 순서를 정하였다.

심사자들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절충하는 선별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추천된 작가들의 수는 많았지만 선정할 수 있는 작가들은 적은 수로 한정되어 있었기에, 안타깝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현재까지 문학적 성과와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 중견작가나 이미 문학적 완숙도를 이룬 원로작가를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미래에 기대를 걸게 만드는 젊은 작가를 격려하거나 새로운 문학적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작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나는 문학적 활동의 특성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심사자들 모두 공감했지만, 아쉽게도, 한정된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러한 이상적(理想的) 지향성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음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는 마음이 크다는 점을 밝혀둔다.

한 작품이나 작가의 고유한 질적 개별성이 양적인 숫자(평가점수나 인원수)로 남김없이 환원될 수는 없으며, 또한 그러한 숫자가 일상적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평균적)인 객관성을 넘어 문학적인 의미에서의 질적 작품성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양'적으로 파악된 '숫자'와 '질'적으로 파악된 '수'는 다른데, 예컨대, 숫자 1이 아닌 수의 질적 특성으로서의 1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며 다른 것으로 환원불가능한 고유성, 통일성, 개별성 등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심의평의 서두에

등장했던 숫자들이 모두 그러한 질적 특성의 기초 위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숫자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작가들 한 분 한 분, 혹은 작품들 하나하나가, 더욱 심층적 차원에서는, 양적으로 측정될 수도 없고 생명력 없는 사물처럼 대상화될 수도 없는 고유한 잠재력을 내포하는 개별적 가능성의 존재들이라는 것이 망각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선정된 분들과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

2017년도 유망작가지원사업(2017 아르코작가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